**Korean version**

**유엔 인권 전문가 – 장애인권리협약을 기회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개선 촉구**

제네바 (2016년 12월 20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발판으로로 삼아 인권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모두가 전적으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2월 6일 자로 비준했다. 해당 협약은 십 년 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특별보고관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상당히 유의미한 조치로, 가장 최근 시행된 보편적 정례 검토(UPR)\* 권고를 이행하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신체, 정신, 감각 및 기타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편견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 가진 특성으로 말미암아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차별을 고심해보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특별보고관은 더했다.

아울러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장애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해야하며, 관련 전문가가 국가를 방문하여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기회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앞서 비준한 다른 인권 협약을 이행하고, 인권 메커니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특별보고관은 더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준한 다섯 번째 인권 협약으로, 앞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81), 아동권리협약(1990), 여성차별철폐조약(2001) 등을 비준했다.

올해 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기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은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 내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유일한 절차로 회원국 모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디가 되었든 침해 상황을 다루려는 목적이다. 보편적 정례 검토 시 인권 상황을 평가받는 대상국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도록 하는 한편, 해당국이 자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편적 정례 검토 절차를 기회로 회원국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끝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웹페이지:* [*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

*추가 정보 및 언론사 영어 문의는 Tarek Cheniti**(+82 2 725 3522/* *tcheniti@ohchr.org**), 한국어 문의는* ***안윤교*** *(+82 2 725 3523 /* *yahn@ohchr.org**)로 문의주십시오.*

기타 유엔 위임권한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비어 셀라야(Xabier Celaya)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

**언론사 뉴스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관련:** 보도자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핸들(아이디,주소)을 이용해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UNHumanRights](http://twitter.com/UNHumanRights)
Facebook: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
Instagram: [unitednationshumanrights](http://instagram.com/unitednationshumanrights)
Google+: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plus.google.com/%2Bunitednationshumanrights/posts)
Youtube: [unohchr](https://www.youtube.com/user/UNOHCHR)